

지속 가능한 ‘문화 플랫폼’으로 질적 도약 꾀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올해 사업계획 발표

설립 5년차, 성과 중심 경영·미래 가치 창출 강화
공연 프로 통합·확대 재정비…고급화 전략 모색
콘텐츠 국내외 유통·확장…K-컬처 확산 지원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올해 설립 5년차를 맞은 가운데 프로그램 통합을 통한 브랜드 재정비, 대표 콘텐츠의 확장,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축으로 ‘성과 중심 경영·미래 가치 창출’을 강화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김명규·ACC재단)은 15일 ‘ACC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5년의 성과를 토대로 장기 전략체계를 재정비하고, 2026년을 향한 본격적인 도약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ACC재단은 2025년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도 콘텐츠 경쟁력과 운영 성과를 동시에 끌어올렸다. ACC 개관 10주년을 계기로 고품격 공연과 대형 전시를 선보이며 관람객 수요를 확인했고, 창작·제작 콘텐츠의 국내외 유통 성과도 가시화했다. 어린이문화원은 관람객 중심 공간으로 탈바꿈하며 지난 한 해 81만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역협력사업과 관람 편의 개선 역시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졌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ACC재단은 기관의 미래 가치 창출과 책임·성과 중심 경영,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핵심 축으로 한 장기 전략체계를 수립했다. 단기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 가능한 문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겠다는 방향성이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사업 구조를 정비하고 콘텐츠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기로 했다.

올해 ACC재단 사업의 키워드는 △프로그램 통합을 통한 브랜드 구축 △대표 콘텐츠의 확장 △

콘텐츠 고급화 △지역과의 협력 강화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들이 쉽게 기억하며 찾을 수 있는 브랜드 체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가장 큰 변화는 대중화 콘텐츠

다. ACC재단은 지난해

ACC 10주년을 기념

해 세계적 명성

의 호주 서커스

‘더 펄스’

(The

Pulse)와

대형 전시

‘뉴욕의 거

장들: 잭슨

폴록과 마크

로스코의 천

구들’을 선보이

며 고품격 문화

수요를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ACC 슈퍼클래식’, ‘ACC

퍼니’ 등 세분화된 공연 프로그램은 ‘ACC 초이스’로

통합해 세계적 수준의 우수 공연을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 인지도와 완성도도 강화한다. 대표

브랜드 공연인 ‘ACC 브런치콘서트’는 ‘ACC 브

런치콘서트 플러스’로 확대한다. 기존 월 1회 오전

공연에서 월 2회, 오전 11시와 오후 7시 30분 공연



ACC 10주년 특별전 ‘봄의 선안’과 연계해 출시한 문화상품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캐릭터인 ‘시아와 친구들’이 아이들의 환호 속에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으로 늘려 직장인과 학생 등 다양한 관객층의 접근성을 높인다. ‘ACC 빅도어 시네마’와 ‘ACC 빅도어 콘서트’는 ‘빅도어 페스티벌’로

통합 운영해 축제형 콘텐츠로 발전시킨다.

지난해 가능성을 확인한 대규모 대중화 전시도 이어진다. 오는 9월 인상주의 거장들

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 모네, 르누아르, 반

고흐 그리고 세잔’에 이어 10월에는 만화 ‘식객’의

서사를 전시 콘텐츠로 재구성한다.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전시 ‘아쿠아 천국’은 인도와

호주로 진출하고, 판소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두 개의 눈’은 대만국립전통문화원 예술제에서 초청

공연으로 선보인다. 한국을 대표하는 만화 ‘식객’과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을 소재로

한 ‘한국의 만화와 웹툰’ 기획전은 오는 6~9월 오스트리아 빈 국립세계박물관에서 펼쳐 K-콘텐츠의 문화적 가치와 매력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어린이문화원은 노후 유아놀이터를 전면 개편해 놀이를 통해 아시아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물임형 체험 공간으로 세단장한다. 조직적으로는 어린이문화예술교육팀을 신설해 문화예술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기능을 강화한다. 어린이 주도 참여형 프로그램인 ACC 어린이해설사는 어린이크리에이터로 전환해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갖춘

예비 문화예술 인재를 양성한다. 어린이극장 역시 자체 콘텐츠 개발과 상설 공연 확대를 통해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해 광주

동구와 함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꿈의 예술단’ 예비거점기관으로 선정된 꿈의 극단 광주

동구 사업도 올해 본격 추진해 미래 문화예술 인재 양성에 나선다.

문화상품점 ‘들락’ (DLAC)은 기관·디자인·콘텐츠 상품 개발을 지속하는 동시에, 온·오프라인

마케팅과 협업 상품을 확대해 수익 구조를 한층 강화한다.

기존 ‘ACC 브런치 콘서트’ 관람시 공연장에서 제공했던 브런치는 지역 상권과 연계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인근 식당·카페와의 제휴를 통해 공연 관람이 지역 소비로 이어지도록 해 문화·경제

상생 구조를 만들 복안이다. 주차관제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이용 흐름과 혼잡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관리위탁 공간에

관람객 체류형 편의·문화 서비스 공간을 확충해 방문객의

체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김명규 사장은 “2026년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질적 도약의

해로 삼고, 콘텐츠 경쟁력과 공공성을 동시에 강화할 것”이라며 “통합과 확장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과 세계를 잇는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이선희 작 ‘빛이 가득한 삼나무숲’



이두환 작 ‘월하도금도’ (月下古今圖)

동물에 대한 독창적 시선·깊은 감수성 표현

‘쥬토피아’전…장성 아인미술관에서 송영하·이선희·이두환 작가 작품

전남 장성 소재 아인미술관은 새해를 여는 기획전을 ‘쥬토피아(Zootopia) 두번째 이야기’라는 주제로 지난 7일 개막, 3월 3일까지 갖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첫 번째 ‘쥬토피아’전 성공적 진행에 이어 동물을 주제로 한 예술적 서사를 확장하는 두 번째 자리로 마련된 가운데 반려동물을 의인화하거나 동물의 감정과 존재성을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낸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동물이 더 이상 단순한 감상의 대상을 넘어 하나의 주제로 자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자리다.

참여작가로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송영하 이선희 이두환 작가 등 3명이다.

주제인 ‘쥬토피아’는 ‘Zoo’(동물원)와 ‘Utopia’(유토피아)의 합성어로, 동물들의 유토피아가 펼쳐지는 무한한 상상과 작품 세계를 의미한다. 현대 사회에서 반려동물 문화는 가족의 개념을 확장하

며, 치유와 위로, 정서적 안정과 같은 심리적 가치까지 포괄하고 있다. 예술가들은 일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과의 경험과 감정적 교감, 유취의 순간, 그리고 사유의 단편들을 자신만의 예술 언어로 재해석해 왔다.

먼저 송영하 작가의 작품은 가장의 책임감과 그 이면에 피어난 사랑을 작품 속 의인화된 동물들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그의 작품에서 동물은 인간과 삶의 무게를 공유하며 위로를 건네는 서사의 주제로 등장한다. 작가는 “투박한 사람의 서사가 고단한 삶을 버티는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한다.

이어 이선희 작가의 대형 작품 시리즈 ‘아무튼 한라산부터 시작합시다’ 작품은 제주 이주 후 5년의 기록 중 ‘제주의 자연, 역사,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형형색색의 그림으로 표현한 대표 작품으로 높이 2m가 넘는 대작이 출품됐다.

현대의인이 이야기와 고양이와 서사로 대체되면서 그림 속 풍경에 대한 감정이 배가된 고양이 서

사에 조건의 풍속도와 동남아시아의 세밀화의 언어가 융합된 현대 풍속도로 특색있는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두환 작가의 작품은 ‘인간관계의 의미’라는 내용을 여러 가지로 묶어 담아내며 나와 타인 간에 인식과 인간 관계에 대한 탐구를 여러 동물 도상의 형상을 작품의 주제로 선정해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여러 색깔들을 활용해 화면속에 터치한 결과 전통 채색의 기법을 이용한 겹침의 표현이 돋보인다.

미술관 관계자는 “작가만의 개성이 투영된 ‘쥬토피아’ 전시는 우리 곁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의 존재 의미를 다시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일상의 가능성, 나아가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감성적 ‘유토피아’를 상상해보는 자리”라면서 “동물에 대한 독창적인 시선과 깊은 감수성을 지닌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통해, 관람객이 따뜻한 공감과 새로운 사유를 경험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역사·예술·과학 관점서 ‘기후변화’ 탐사

광주과학관·박물관·시립미술관 협업 ‘가족탐사대’ 운영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은 역사·예술·과학 문화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겨울방학 프로그램 ‘MoCHAS 가족탐사대’를 운영한다.

‘겨울방학 과학관, 박물관 그리고 미술관 이야기’라는 사업으로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유관기관인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최홍선),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윤익)이 함께 협력했다. 프로그램의 명칭인 ‘MoCHAS’(모카스)는 ‘Museum education of Combined History, Arts and Science’의 약자로, 역사·예술·과학을 결합한 박물관 교육을 의미한다. 진한 향의 모카(Mocha) 커피처럼 세 기관의 협력과 융합을 통해 지역민들이 풍성한 역사·미술·과학 문화를 함께 향유한다는 의미로 새롭게 기획됐다.

이번 ‘MoCHAS 가족탐사대’의 주제는 ‘기후변화가 인간과 생물에 미치는 변화 이야기’다. 참가자들이 기후변화를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융합형 체험 교육으로 구성됐다.

이론 수업에서는 따뜻함이 가져온 변화를 비롯해 변화하는 환경, 위협받는 생물 이야기, 도시 속 작은 틈의 생명체 등이 다뤄진다. 기후 및 생물, 적응도구 카드게임과 지구 온난화 실험, 도시 속 작은 생명체 이끼 관찰 등에 관한 체험도 마련된다.

교육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국립광주과학관 별빛누리관 2층 대강당에서 오전과 오후로 나눠 회당 2시간10분씩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초등학생을 동반한 가족으로, 회당 15가족(보호자 1명 필수 동반)으로 총 8회 운영된다.

참가신청은 국립광주과학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며, 접수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교육 당일 ‘기후 및 멸종위기 특별전’ 무료 관람을 지원한다.

국립광주과학관 과학교육실 김진국 선임연구원은 “이번 협업 프로그램은 지역 어린이와 학부모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며, 의미 있는 겨울방학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준비했다” 밝혔다.

‘MoCHAS 가족탐사대’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https://www.sciencecenter.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국립광주과학관 역사·예술·과학 문화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겨울방학 프로그램 ‘MoCHAS 가족탐사대’를 운영한다. 사진은 지난해 여름방학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과학관과 박물관 이야기’ 모습.